

- 주요 뉴스: 연준 월러 이사, 빠르면 7월 금리 인하 필요, 관세의 물가 영향 엇갈린 시각
 - EU, 중국 기업의 연간 의료기기 입찰 한도를 600억유로로 제한
 - 일본은행 총재, 경제 개선되면 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
 -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통제권 유지 판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 기업 위주로 낙폭이 확대
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주 등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약세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이사의 금리인하 필요 발언 등을 반영
독일은 생산자물가지수 하락폭이 제한된 가운데 보합

※ 뉴욕 1M NDF 증가 1370.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3.0원, 0.54% 상승). 한국 CDS 보합

		6/20일	6/19일	전일대비			6/20일	6/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67.8	휴장	-0.22%	국채 금리 10y	미국	4.38%	휴장	-1bp
	유럽	536.53	535.86	+0.13%		독일	2.52%	2.52%	+0bp
	중국	3,359.9	3,362.1	-0.07%		영국	4.54%	4.53%	+1bp
	일본	38,403	38,488	-0.22%	CDS 5y	한국	28bp	28bp	+0bp
	한국	3,021.8	2,977.7	+1.48%		중국	54bp	53bp	+1bp
	달러지수	98.71	98.91	-0.20%	위험 지표	EMBI+	-	378	-
환율	유로화	1.1523	1.1495	+0.24%		VIX	20.62	22.17	-6.99%
	엔화	146.09	145.45	-0.44%		WTI유	74.93	휴장	-0.28%
	위안화	7.1815	7.1878	+0.09%	원자재	구리	483.4	휴장	-0.40%
	원화	1,365.6	1,380.2	+1.07%		금	3,368.4	3,370.9	-0.0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월러 이사, 빠르면 7월 금리 인하 필요. 관세의 물가 영향 엇갈린 시각

- 월러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이지 않고 있다면서 7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 또한 고용 시장이 둔화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에 근거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반면,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웃돌고 있으며, 관세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입장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고용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7월 보다는 가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발언.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
- 이에 BlackRock의 글로벌 채권 CIO는 연준 내에서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 Financial Times는 아직까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이 미미한 수준인 반면, 고용시장에 대한 시각은 분열되고 있다고 설명
- TS Lombard의 이코노미스트는 월러의 솔직한 발언이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일본은행 총재, 경제 개선되면 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

- 우에다 총재는 경제가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경우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 당분간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정체되겠지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부연. 일본의 5월 근원 CPI는 전년비 3.7% 상승하여 예상치 상회
- 한편, 이날 공개된 일본의 5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현재의 매우 낮은 실질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 특히 한 위원은 미국의 무역정책이 안정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

■ 미국, 이란과 예멘의 親이란 무장세력 후티 등에 추가 제재

-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민감한 장비(Sensitive Machinery) 조달에 관여한 개인 1명, 단체 8곳, 선박 1척을 제재한다고 발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해 탄도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등의 조달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

■ EU, 중국 기업의 연간 의료기기 입찰 한도를 600억유로로 제한

-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기업들에 연간 600억유로, 건당 500만유로 이상의 의료기기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이는 EU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정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또한 공공조달에서 중국산 의료기기가 포함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

■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에 1조달러 인공지능 산업단지 설립 구상

- 소프트뱅크는 미국 애리조나에 인공지능, 로봇 등을 개발하는 1조달러 규모의 산업단지를 설립할 계획. 또한 이를 위해 대만 TSMC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삼성전자 등의 IT 기업들의 관심도 파악 중. Bloomberg는 해당 계획이 아직 예비적인 단계일 뿐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지원 여부 등도 중요하다고 보도

■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통제권 유지 판결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LA 주방위군 배치는 정당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대한 무제한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당시 LA의 시위가 상당히 폭력적이어서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 해당 판결에 대해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승리(BIG WIN)라고 표현

■ 중국-뉴질랜드, 무역 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 중국 시진핑 주석과 렉스 뉴질랜드 총리가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 투자, 과학기술 혁신,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강화 등을 논의

주요 경제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6/23~2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S&P 글로벌 PMI(6/23일), 5월 PCE 물가지수(6/27일)
- 유로존 HCOB PMI(6/23일), 일본 도쿄 소비자물가지수(6/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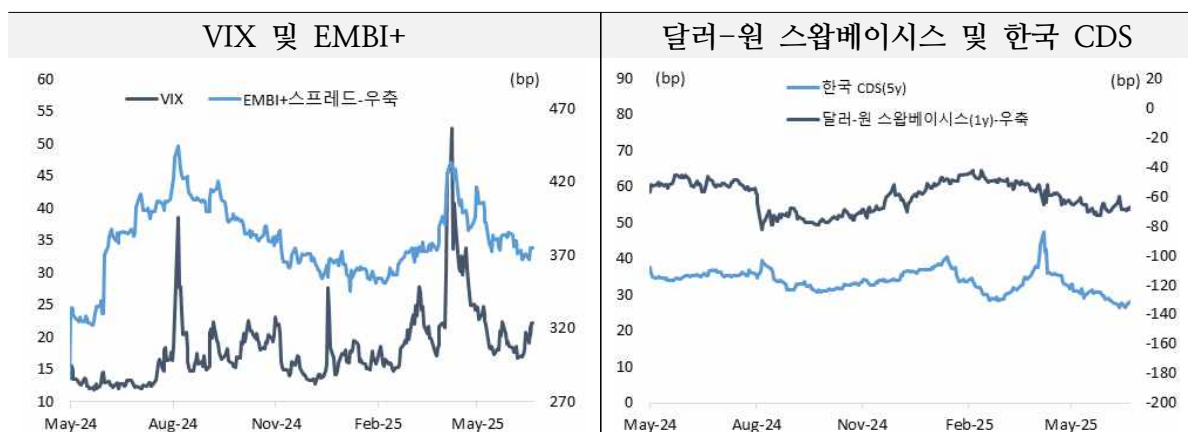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